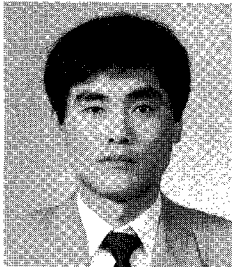


계열화 사업 이대로 좋은가



이 선 열
금곡농장 대표

우리나라에서는 수평계열화다 수직계열화다 외치며 계열화사업이 시작된지도 12년이 지났지만 외형이나 내부의 사정은 아직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믿고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실상은 참담하다.

우리나라에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인상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농가에 지급되고 있

는 위탁사육 수수료다.

이러한 현실은 기네스북 첫머리에 수록될 수 있는 기록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현실이 왜 발생하였는가 한 번 육계업을 하고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보자.

육계 농가의 책임도 있었지만 육계농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계열화 사업만이 육계업을 회생시킬 수 있으며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책을 이끌어 갔고 육계농가는 이러한 정부의 말만 믿고 계열화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현실은 해가 바뀌면서 상황은 더욱더 어렵게 변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막대한 축산발전기금으로 무리한 시설투자과 대책없는 농가의 사육수수 증가로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끼리 서로 입추하려고 아우성을 치는 실정이다.

계열화 참여 업체의 사정은 자기 자본 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정부의 자금과 빚으로 무리한 시설투자와 기업경영의 부실로 결국 그 피해가 농가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계열화 사업이 이 땅에 처음 시작될 때 닭고기 1kg을 생산해내는 사육수수료가 140원으로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으며 약값도 수당 50원으로 여전히 인상되지 않고 있다.

광열비는 처음보다 300% 이상 인상되었는데도 농가에게 지급되고 있는 광열비는 약 60% 인상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 농가들은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도 못하고 앉아서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계열화 사업이란 농가에 닭을 사육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 주고 농가는 공급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계열화 업체에서 요구하는

무게와 건강한 닭을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며 농가는 사육한 대가를 수수료라는 명칭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그러한 계열화 업체는 업체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본래의 계열화 사업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계열화 사업이 아닌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모든 위험요소는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계열화 업체의 책임은 없도록 되어 있다. 즉, 계열업체는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여 생닭을 1kg에 일정 가격을 정하여 놓고 납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열화 업체와 참여 농가간에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 된다. 계열화 업체에서는 작성한 계약서대로 약속을 이행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종이가 남아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대외 홍보용으로 작성하여 참여 농가를 울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다.

농가와 계열화 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열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밀려 농가는 정당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난계대 전염병에 감염된 병아리를 입추하였어도 계열 업체는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인정한 난계대 전염병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병아리는 공산품에 비교하면 원자재에 속한다. 원자재가 불량한데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이 병아리 상태가 불량하면 건강한 닭을 키워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사료의 품질에도 문제가 많다. 왜 일반사료 업체에서 구매한 사료를 먹여 키운 닭은 사료

효율이 좋은가 계열 업체는 생각해 보고 반성하여야 한다.

한 사료 공장에서도 일반 판매사료와 계열화 업체에 공급하는 사료의 질이 틀리다고 한다.

사료의 질보다 가격을 먼저 정하여 놓고 사료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가들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지 말고 계열화 업체는 농가와의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왜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정당한 주장을 펴지 못하고 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가! 불합리한 유통상의 문제점 때문에 일반 농가로 전환하여 개인닭을 사육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기 닭을 사육한 경험이 없어 병아리 구매와 사육한 닭을 시판할 때 고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점 때문에 상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농가는 마리수와 1년간의 사육횟수가 소득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계사건축비의 투자로 인하여 병아리와 사료를 현찰로 구매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는 실정이다.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일반농가로 전환하면 일반농가도 설자리를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농가나 계열화 참여 농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단결하여 우리나라 육계업을 안정된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며 계열화 참여농가는 더욱더 단결하고 뭉쳐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로 집결시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협회에 가입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집결되는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정당한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양계**